



이름 : 수달

몸통 길이는 평균 65~70cm 정도이며 꼬리 길이는 40~50 cm 정도 무게는 12kg. 유럽 기준으로 봄철에 교미하며, 주로 6월에 새끼를 1~5마리쯤 낳는다.

입 주변에 있는 수염은 더듬이 역할을 한다. 송곳니가 발달했으며 야행성이며, 후각이 예민하다. 물가에서 굴을 파서 산다. 활동 반경도 20~30km로 넓은 편이다.

수달은 보통 1급수에서만 서식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2급수 심지어 3급수에서도 살 수 있으며, 서식에 가장 중요한 조건은 풍부한 먹이다.

개발이 빠르게 진행되어 강에 대형 수중보와 댐등이 많이 설치되어 한국에서는 과거보다 살기 어려웠으나, 보호정책 등을 통해 최근들어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굵은 털과 윤기 때문에 많이 사냥 당해 가죽이 벗겨졌고, 오늘날에도 밀렵꾼들이 사냥하고 있다.

수달은 새로운 동물을 보아도 겁 없이 탐색하는 편이다. 냇가나 강가가 근처에 있으면 쉽게 수달이 도망칠 곳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수달 몸은 민첩성이 매우 뛰어나 공격을 피하기 쉽고, 자신보다 몸집이 훨씬 큰 개나 사람들을 보아도 도망치지 않고, 가까이 다가와 탐색을 하기도 한다. 이런 행동은 수달이 호기심이 많고, 민첩성에 대해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속도는 빠르지 않지만 공격을 잘 피해서, 물러나다 보면 물가까지 도망칠 수가 있다.